쿠웨이트 원유 국내 비축시설 저장

쿠웨이트 원유가 국내 석유비축시설에 저장된다.

산업자원부에 따르면, 중동을 방문중인 이해찬 국무총리는 쿠웨이트의 알 자베르 알 사바 총리와 쿠웨이트 원유를 한국에 공동 비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.

이에 따라 한국은 원유 저장에 따른 임대수익과 함께 석유 공급부족 등 유사시에 원유를 우선 확보할 수 있게 됐다.

이해찬 총리는 쿠웨이트 에너지부장관을 만나 한국기업의 쿠웨이트 플랜트시장 진출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.

<화학저널 2005/11/29>